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사회

다문화

교육과 미래

지역사회에 희망 주는 대학교육



이지현

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지도자를 길러내는 대학교육은 정권교체로 불안감이 가득한 소외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것이다.

3월의 대학엔 활기가 넘친다. 캠퍼스에는 깃발과 횡단막이 나부끼고, 포스터와 안내자료가 가득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환영식으로 바쁘다.

입시교육의 질곡에서 해방된 학생들은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뜨거운 환대 속에서 대학에 친근감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학 4년은 마음먹기에 따라 뜻을 세우고 실현할 여량을 길러낼 수 있는 긴 시간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의지와 능력을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은 일찍 출발한 사람이 남보다 먼 길을 간다는 것이다. 입학 후 빠르게 적응하고, 기초와 전공 공부에 일찍 매진하며, 장래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찾는 학생일수록 졸업 때 환하게 웃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능력을 갖추려고 동분서주하는 학생, 전공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자신의 삶의 목적에 맞는 직업세계로 진출할 준비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하고, 대처하는 자세도 유연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희망적이다. 성장하고 성숙해가

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기본 일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왜 대학에 왔는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장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대학이나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단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실패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탓하기 전에 교수 탓, 대학 탓, 지역 탓을 하기 쉽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들을 적극 이끌어가는 일은 대학의 책임이다. 대학은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에서 어떤 수준까지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대학의 교육적 의지가 확고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해 제한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체계적으로 투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육적 책임이다.

대학교육을 가로막는 방임적, 방관적, 방자한 교육관은 극복되어야 한다. 대학생은 자율적

성인이므로 지도,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교수들이 연구나 외부 활동에만 몰두하고 학생 교육을 도외시하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교수의 지도와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일부 학생들의 생각은 대학에 왜 왔는지를 망각하는 오만한 자세이다.

캠퍼스에 들어온 모든 학생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에 주력할 때 대학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고, 지역을 살리며, 문화 창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교육은 비극적인 학벌사회를 해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지도자를 길러내는 대학교육은 정권교체로 불안감이 가득한 소외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것이다.

모든 입학생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대학에서 피어난 도덕적·합리적 문화는 건설한 문화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러일으켜줄 이러한 대학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남권 특별법’ 후속대책 서둘러라

‘서남권특별법’(신발전지역 투자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우려곡절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명이 두 차례 바뀐데다 내용도 대폭 수정돼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 서남권개발사업의 성과가 특별법 제정 이후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가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행령 제정이다. 우선 시행령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정부 내 조직구성을 명문화해야 한다. 확실한 추진주체가 결정돼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 범위를 서남권 지역으로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서남권이라는 지역명칭이 빠져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사업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서남권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가운데 91%가 민자유치다. 따라서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호남고속철 건설 등 대형 인프라 확충에는 국비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서남권개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남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약했다. 그렇지만 호남 소외 인사에서 모였음이 대통령의 공약을 역행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지역민들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서남권개발은 지난해 1월 확정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특별법에서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 등을 통해 보충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약과 광주·전남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인 서남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모든 지역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되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의 여파로 각종 물가가 경총 뛰고 있는데다 1월 경상수지마저 11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월 경상수지 적자는 26억달러로 지난 1997년 1월 31억달러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8억1천만달러에 이어 두달 연속 적자 행진이다.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고유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초 연간 30억달러로 예상했던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동향도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9%에 달하며 4%대 물가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라면과 자동차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 국제수지 적자라는 3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대외여건은 더욱 불안하다. 국제유가

는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밀, 콩 등 곡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라 실물경제 둔화 현상이 뚜렷하고 중국은 물가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는 등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비상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목표 수급 제시한 6% 성장은 어렵다.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다. 성장률을 높이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환율에 수대만 물가 압력이 커지고 서민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경제살리기다.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경제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無等鼓

최근 ‘싱송(Sing-song) 외교’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 26일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일컫는 말이다. 뉴욕필 공연 후 워싱턴 포스트는 “연주 자체가 평양 주제 미국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싱송 외교는 미국과 중국의 ‘핑퐁(Ping-pong) 외교’를 빗댄 표현이다. 핑퐁 외교는 1970년대 초반 일어났던 미국과 중국을 넘어준 국적인 이벤트였다. 1971년 4월 6일 폐막한 제31회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탁구선수단 15명과 여자 4명은 같은 달 10~17일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돌아보았다.

이를 계기로 그해 7월에는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에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같은 2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후 24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이어 중국은 197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을 전폭 수용하는 ‘개혁개방’을 단행해 오늘날 세계경제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 세계는 싱송 외교가 북한의 개방으로 확대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싱송 외교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동안 한 쪽에서는 쓸쓸한 일이 벌어졌다. 뉴욕필이 성조기를 내걸고 공연하던 바로 그날 열린 남북 축구회담에서, 북한은 다음달 26일 평양에서 벌어지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축구 남북합예선전에 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축구협회(FIFA) 주관 이, 광저우 등을 돌아보았다.

이들 계기로 그해 7월에는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에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같은 2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후 24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이들 계기로 그해 7월에는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에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같은 2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후 24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이들 계기로 그해 7월에는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에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같은 2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후 24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사커 외교’



이들 계기로 그해 7월에는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극비에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방중, 같은 2월 27일 발표된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 후 24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백영곤



‘봄벌에 얼굴을 태우면 남도 못 알아 본다’는 말이 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내리쬐는 이른 봄의 햇살은 뜨겁다기보다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다. 이 때문에 햇벌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유래한 말로 생각된다. 피부가 무방비 상태에서 잠시간 태양광선 노출되면 해로운 자외선들로 인해 피부가 점차 상하게 된다.

집안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색소질환인 기미는 외관상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얼룩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외선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진 ‘피부보호막’인 셈이다.

자외선은 피부노화 주범

도 바로 해로운 자외선 때문이다. 따라서 주름과 잡티가 없는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색소질환인 기미는 외관상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얼룩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외선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진 ‘피부보호막’인 셈이다.

따라서 주름과 잡티가 없는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은 피부노화 주범이다. 따라서 주름과 잡티가 없는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색소질환인 기미는 외관상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얼룩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외선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진 ‘피부보호막’인 셈이다.

따라서 주름과 잡티가 없는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은 피부노화 주범이다. 따라서 주름과 잡티가 없는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색소질환인 기미는 외관상 색소 침착으로 인해 피부가 얼룩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외선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진 ‘피부보호막’인 셈이다.

세계 11위 무역대국답게 교통질서 의식 개선을

자동차 1천8백만대가 늘어났다. 1가구당 1대를 넘어서 2명당 1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에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통질서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 무역대국 11위를 자랑하지만 교통질서 의식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교통혼잡 비용은 24조원에 달하고(GDP의 3%), 교통사고 비용 또한 10조원에 달한다(GDP의 1.1%)고 한다. 결국 교통질서 관련 비용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에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 들어갈 계획이다.

이제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에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 들어갈 계획이다.

이제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에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 들어갈 계획이다.

기고

문병민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한 지 89년째 되는 해이다.

운집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장남을 택한 것과 청년층이나 학생층이 직접 운동의 주도층으로 나선 경우도 있다. 이들 청년과 학생들은 1920년대 이후 우리 지역과 타지에서 민족,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등장하여 활약했다. 또 육지와와 원거리 심산이라는 이점을 살린 완도 도서지역은 독립운동활동의 요람으로써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완도출신 애국지사 독립유공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 지배하 한국 민족 최대 독립운동이었으며,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으로 세계 민족국가 해방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노래한 것도 바로 3·1운동 때문이었다.

3·1운동은 전국에서 7천여 명이 넘는 양민이 죽고 1만6천여 명이 부상당하고 4만7천여 명이 체포돼 투옥됐다. 이처럼 수만 명의 목숨과 피와 눈물이 된 민

다시 새겨보는 우리 고장 3·1만세운동

천도교인, 청년, 학생, 유생층으로 나타나며 주력부대는 역시 농민과 보통학교 학생이었다. 이는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유생층도 한말 의병병기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운동을 주도할 만한 역량이 충분치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다. 89년 전의 우리 선인들이 외쳤던 3·1 독립만세운동과 자주독립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 3·1정신 계승 독립만세운동 재현, 마라톤 대회, 문예 활동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자주독립의 얼을 계승하고 있다.

광주, 목포 등 주요 도시지역은 기독교도들이, 장흥·순천·여수·구례·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은 천도교도가, 강진·고흥·순천·완도 등은 기독교와 천도교도가, 해남·나주·담양 등은 유생들이, 영광·곡성 등은 교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방인 장성 등지에서는 야간 봉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1절은 단소히 공휴일, 쉬는 날이 아니다. 3·1절을 맞아 오늘날이라도 태극기를 품에 안고 숨겨가며 독립만세운동을 외쳤던 우리 고장 3·1운동 선열들을 되새기며,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 발전이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길이 계승되길 바란다.

또 하나는 비록 격렬한 만세운동은 전개하지 못했지만 농촌에서의 산상 봉화, 산상 만세운동 등이 어느 지역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3·1절을 단소히 공휴일, 쉬는 날이 아니다. 3·1절을 맞아 오늘날이라도 태극기를 품에 안고 숨겨가며 독립만세운동을 외쳤던 우리 고장 3·1운동 선열들을 되새기며,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 발전이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길이 계승되길 바란다.

휴대전화 가입에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해서야

사업상 휴대폰이 하나 더 필요해 인터넷을 뒤졌다. 한 경제사이트에서 가입비 없이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고 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해 가입의사를 밝혔더니 담당자가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고 했다.

휴대폰을 가입하는데 주민등록증이야 복사할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행정기관에서 공인된 개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 회사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지위서 보내겠다고 말했다니 그건 안된다며 모두 나와있는 것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해 결국 보내지 않고 공짜폰을 포기했다.

휴대폰을 가입하는데 주민등록증이야 복사할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행정기관에서 공인된 개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이면 되는 것 아닌가.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